

올해 첫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재개발 및 후속 15개 신도시 개발 수주 지원

- 박상우 장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발 기념하여 이라크 방문
- 尹정부와 기업의 재개발 노력 성과, 이라크도 주택·도시 사업 의지 커
- 이라크, 재건을 위한 철도·도로망 프로젝트(170억불) 등 한국기업 참여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5일(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발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 25일(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발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²,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공공시설을 짓는 총 101억불, 잔여 55억불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화건설에서 수행 중이며 양국 인프라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 `12년 착공 후 최근 `22년 10월에 미수금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건설 활성화 지시에 따라 6년 만에 개최된 양국의 공동위원회 개최(`23.6월)를 비롯하여 장관급 수주지원단 파견(`23.1월), 장관급 초청 면담(`23.9월), 양국 정상회담(`23.9월)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 노력으로 잔여 사업이 재개발되었다.

- 국가투자위원회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 10만호 완성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라크 측의 지속적인 협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 특히, 한국의 그간 신도시 개발 경험과 스마트 시티 기술을 언급하며 비스마야 신도시를 모델로 한 15개 후속 신도시 프로젝트*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 * 이라크 수도 및 중부 6곳, 남부 4곳, 동부 2곳, 서부 3곳 등(이라크 정부 자료)
 - 또한, 박 장관은 사업재개를 위해 노력한 한화건설 임직원을 포상하고 신도시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라크 내 추가 신도시개발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부터 ODA 등 정책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박 장관은 라자크 무하이비스 알 사다위 교통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방파제, 터미널, 연결도로 등 `14년부터 대우건설이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알포 항만의 후속 공사(20억불)를 비롯하여 주요 재건사업에 대한 수주를 지원하였다. 사다위 장관은 기존 항만 조성 외에도 항만 인근의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등에도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 특히, 사다위 장관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170억불 규모의 철도·도로망 프로젝트*("Development Road")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였다. 이에 박 장관은 도로·철도 경험이 많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이라크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 * 이라크 알포항부터 유럽(튀르키예)까지 연결하는 약 1,200km 고속도로·철도 사업
- 박 장관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해외 도시개발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취임 후 선언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의 첫 성과가 이번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라고 강조하며
 - “우리나라가 우수한 스마트 시티 기술을 바탕으로 이라크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책임자	과 장	우종하 (044-201-3526)
	해외건설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남궁부 (044-201-3527)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 (발 주 처)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 (사업규모) 101억불(BNCP 80억불, SI 21.2억불)
- (사업면적) 550만평(분당 신도시급)
- (기간/수행) '12년~'20년(변경계약 예정) / 한화건설
- (추진상황) 총 10만호 중 3만호 공사재개('23.12~), 잔여 7만호 간접비 등을 반영하여 변경계약 후 재개(협의중)



사업명	Bismayah New City Project (BNCP)	Social Infra Project (SI)
발주처	NIC(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NIC(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공사기간	총 7년('12~'19년) (준비기간 2년 포함)	총 5년('15~'20년)
계약금액 (공정률)	80억불 (계약금액 77.5+물가상승조정 2.5억불)	21.2억불
비고	[타입] 100m ² , 120m ² , 140m ² ⇒ 총 100,080세대(59블록)	교육시설(294개), 공공시설(160개), 병원(400병상), 연계도로, 송배전 등